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퀴텀2'를 선보인다. 19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23일 공식 출시한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양자난수생성(QRNG) 칩셋을 탑재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 없는 순수 난수를 생성해 보안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행·차박·업무·의전까지...달아오르는 국내 MPV시장



국내에 선보이는 첫 번째 하이브리드 미니밴인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왼쪽)는 2.5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14.5km/L라는 뛰어난 연비를 달성했다. 현대차의 새로운 MPV모델인 스타리아는 우주선을 닮은 유니크한 외관과 넓은 실내 공간이 가장 큰 매력이다. 다양한 트림 구성을 통한 뛰어난 가성비와 활용성도 갖췄다. 사진제공 | 토요타코리아, 현대차



뉴 시에나·스타리아 출격...미니밴 경쟁 '후끈'

(토요타)

(현대차)

(MPV)

미니밴 혹은 MPV(multi-purpose vehicle)라 불리는 다목적 차량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넓은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레저, 여행, 의전,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최근에는 대형 SUV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차종이 MPV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연비를 강화한 토요타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와 완전히 새로운 MPV를 지향하는 현대차 스타리아가 더욱 강화된 편의사양으로 무장하고 13일 공식 출시됐다. 국내 미니밴 시장의 지형도를 바꿀 두 모델의 특징을 살펴봤다.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 준중형 세단 수준으로 연비 강화
스타리아, 우주선 닮은 외관 눈길 라운지·투어러 모델로 선택 폭 넓혀

●국내 첫 하이브리드 미니밴, 뉴 시에나

토요타 시에나는 2011년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고급 미니밴 시장을 개척한 상징적인 차량이다.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한 미국식 대형 미니밴이며, 뛰어난 실용성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국내에서도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다. 2015년 사륜구동 미니밴을 처음 선보인 것도 시에나다. 이번에는 3년 만에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4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엔진 중심의 수평적 구조를 갖춘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 실내(왼쪽)와 폴플랫 시트를 접어 차박 공간으로 꾸민 스타리아 실내.

600만 원대의 프리미엄 미니밴인 시에나는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 사전계약 기간에 425대가 계약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2017년 기록한 역대 최대 판매 기록(883대)의 절반만 한 달여 만에 달성했다.

뉴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다. 시스템 총 출력은 246마력, 최대 토크는 24.1kg.m으로 넉넉한 파워를 발휘한다.

연비는 준중형 세단 수준이다. 복합 연비 기준으로 2WD는 14.5km/L, AWD는 13.7km/L의 연비를 실현했다. 연비 운전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실연비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WD(전륜구동)와 AWD(E-Four) 시스템을 탑재한 사륜구동 2가지 모델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 우위 요소다. AWD 모델은 주행 상황에 따라 전륜과 후륜에 100:0부터 20:80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승차감으로 정평이 난 모델인 만큼 이번에도 주행 감성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저중심 TNGA(Toyota New Global Architecture) 플랫폼을 적용해 전고와 지상고를 낮추고 휠베이스를 늘렸다. 덕분에 주행 안정성이 개선됐고, 디자인도 더 유려해졌다. 후륜에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새롭게 적용해 전체적인 주행 감성과 3열 뒷좌석의 승차감을 끌어올렸다.

편의사양도 강화했다. 전 모델에 발달작으로 문을 열 수 있는 핸드프리 파워 슬라이딩 도어와 전동 트렁크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2열 시트에는 624mm 범위에서 시트를 전후로 이동할 수 있는 슈퍼 롱 슬라이드 레일을 적용해 승차차의 편리성을 높였다. 2WD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가격은 6200~6400만 원(부가세 포함, 개소세 3.5% 기준)이다.

●MPV 대중화 노린다, 스타리아

현대차 스타리아는 '이동경험을 바꾸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시작'이라는 콘셉트 아래 개발된 신개념 MPV 차량이다.

올해 판매 목표는 3만8000대, 내년부터는 연간 5만500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선을 닮은 외관도 매력적이지만, 진짜 가치는 넓고 높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좌석 구성에 있다.

라인업은 승용 고급 모델 '스타리아 라운지'와 일반 모델 '스타리아' 두 가지다. 스타리아 라운지는 7인승과 9인승, 스타리아는 투어러(9인승, 11인승)와 카고(3인승, 5인승) 등으로 나뉜다. 개개인의 니즈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에는 럭셔리 미니밴 수준의 편의사양을 담았다. 25인치 와이드 모니터, 천정 무드램프 '스타라이트', 업무와 식사가 가능한 테이블 기능이 포함된 아일랜드 콘솔 등이 적용되어 있다.

투어러 모델은 가성비와 활용성이 가장 뛰어나다. 특히 11인승 모델의 경우 좌석을 완전히 평평하게 접을 수 있는 폴플랫 시트가 적용되어, 4인 가족이 여유롭게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전장은 5255mm에 달하고, 실내 높이 1379mm를 확보해 압도적인 공간감을 자랑한다.

R 2.2 VGT 디젤 엔진과 LPG 3.5 엔진 중 선택 가능하다. 디젤 엔진 모델의 복합 연비는 10.8(자동)km/L이며 LPG엔진의 연비는 인종 후 발표된다. 디젤 모델의 경우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AWD)도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2726만 원(디젤, 카고 3인승 기준)부터 4135만 원(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기준, 개소세 3.5% 기준)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치질, 치료시기 놓치고 방치하면 수술 필요

치질은 의학용어로는 '치핵'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흔히 찾아오는 질환으로 하루 종일 앉아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스트레스, 과음, 과식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치질은 피가 항문이나 하부 직장, 그 주변에서 돌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출혈과 잔변감 등을 동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과 출혈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가벼운 1~2기 때는 비수술적인 보존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치핵의 돌출이 상당 부분 진행된 3~4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한다.

치질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다. 보존적 치료는 식이요법, 배변습관 교정, 대변완화제 이용, 리도케인(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크림을 쓰는 약물요법, 찜질과 수렴성 로션을 이용한 통증완화, 더운물 좌욕 등이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경화제 주사 요법, 고무링 결찰법, 항문 수지 확장법, 적외선 응고법, 한냉 응고법 등이 있다.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개방식 절제 수술, 폐쇄식 절제 수술, 점막하 절제 수술, 환상절제 수술, 치핵 절제 수술 등이 있다.

치질은 시기를 놓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과거에는 수술 후 통증과 긴 회복 기간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수술기법이 발달해 3주 정도 걸리던 회복이 7일 이내로 대폭 줄었다. 통증이 적고 수술시간도 짧아져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재발 우려와 부작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동대문 대학외과 이동원 원장

LG화학, 친환경 소재로 중시장 공략 가속화

LG화학이 재생 플라스틱, 색은 플라스틱, 바이오 원료 기반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와 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LG화학은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중국 '차이나플러스 2021'에서 재생 플라스틱인 'PCR ABS'와 'White PCR PC', 색은 플라스틱인 옥수수 성분의 'PLA'와 생분해성 고분자인 'PBAT',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 등을 활용한 바이오 원료 기반의 'Bio-SAP', 환경호르몬이 없는 '친환경 소재' 등 지속가능한 ESG 제품을 대거 선보이고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선다.

이베이, '셀러플렉스'로 신선식품 배송 강화

이베이코리아는 오픈마켓형 풀필먼트 서비스 '스마일 배송'에 '셀러플렉스'를 론칭하고 신선식품 배송을 강화한다. 셀러플렉스는 스마일배송에 입점한 판매자들의 물류센터에서 바로 출고해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기존 판매자들은 상품 재고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스마일배송 물류센터에 옮기는 방식으로 스마일배송에 입점해 왔다. 이베이코리아는 콜드체인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줄이면서도, 스마일배송 이용 고객의 상품 선택폭은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송승환 이베이코리아 스마일배송사업장은 "셀러플렉스는 콜드체인 없이도 신선식품 취급이 가능한 업계 최초의 물류 모델이다. 향후 서비스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유탄유 '모범택시' 제작 지원

현대오일뱅크 유탄유 브랜드인 현대엑스티어(HYUNDAI XTeer)가 SBS 드라마 '모범택시' 제작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주요 촬영 장소인 택시 회사 정비소에 제품 용기와 광고물을 전시해 '현대엑스티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예정이다. 또한 관련 연출 장면을 삽입하고 자사 SNS 통합 계정인 '현대오일뱅크'에 패러디 영상을 게시해 현대엑스티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K리그 후원 등 스포츠마케팅과 정비소 고객에 대한 집중 공략을 통해 지난해 국내시장에서 톱 5로 올라섰다.

바이든 美 대통령 "반도체는 국가 인프라... 공격적 투자해야"

삼성 등 글로벌 기업과 화상회의 관련 기업들에 투자 압박 분석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과의 화상 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행보로, 관련 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주재로 반도체와 공급망 복원에 대한 화상회



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1, 2위 기업인 TSMC와 삼성전자는 물론 자동차 업체 포드와 GM 등 19개 글로벌 기업이 참석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 자리에서 리틀록을 함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이런 칩들과 웨이퍼, 배터리는 모두 인프라"고 말했다. 반도체를 국가 기반시설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악관도 이번 회의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일 뿐 즉각적인 결정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사실상 관련 기업들에 투자 압박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

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야 상·하원 의원들에게 반도체 지원 주문 서한을 받았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지배하려는 공격적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분야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은 삼성전자도 미국 추가 투자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